기사입력 2021.08.30 07:00 최종수정 2021.08.30 07:00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독특한 매력과 특색을 갖춘 도내 17곳 마이스(MICE) 행사 개최지를 선정했다.

마이스는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다.

경기도는 전통적인 회의시설인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아닌 전시복합산업 행사 개최지역의 독특한 정취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역회의 이색 장소인 '경기 유니크 베뉴' 17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파주) ▲한국민속촌(용인) ▲수원전통문화관(수원) ▲허브아일랜드(포천) ▲신구대학교식물원(성남) ▲더힐하우스(양평) ▲쁘띠프랑스(가평) ▲아트벙커B39(부천) ▲마이다스호텔 앤

리조트(가평)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고양) ▲원마운트(고양) ▲광명동굴(광명) ▲김포 현대크루즈(김포) ▲에버랜드 리조트(용인) ▲DMZ생태관광지원센터(파주)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파주) ▲남양성모성지(화성) 등이다.

도는 앞서 지난 4월부터 도내 시·군의 유니크 베뉴 후보지 37곳을 추천받아 인프라, 속성, 접근성, 경영역량, 마케팅,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의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학계와 마이스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심사단의 현장답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콘텐츠(홍보영상, 책자 등)를 제작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적극적인 지원도 펼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정취와 베뉴의 독특함이 공존하는 '경기 유니크 베뉴' 선정으로 경기도 마이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규모의 회의행사를 유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